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주승용 위원장 취임식에서 주 위원장과 송영길·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당정협의회 정례화 지역현안 챙기겠다”

민주당 전남도당 주승용위원장 취임식

민주당 전남도당 주승용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간에 당정 협의회를 정례화 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국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외교·민생·경제 모두 실패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시장·군수, 지방의원 대표 등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남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조

직을 재 정비 하고, 인재발굴과 영입을 위한 창구로 ‘시·군 부위원장단’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송영길·박주선 최고위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성근·유선호·이낙연·우윤근 의원,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당은 취임식에 이어 상무위원회를 열어 남기호 도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김창남 도의원을 상임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김현준 전 목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23명을 시·군별 부위원장으로 기용했다. 김석원 도의원, 이영수 전 열린

우리당 수석부대변인, 김종분 해남군의원 등 3명에게는 대변인직을 맡겼다. 사무부처장에 임행조 전 나주시의원, 공보실장에 박동주 전 광산구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인사 명단 16면)

한편,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기초·광역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중앙당에서 모니터링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중앙당에 직무평가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뇌물사건과 같은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정·김지우 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욕설 여성단체 사과 요구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열린 제 172회 임시회에서 김일출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데 항의하여 의원들에게 “개같은 X들”이라는 등 음에 담긴 험담 욕을 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의원 개개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욕설, 반말과 막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부린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기환 서울시장의 뇌물 제공사건과 관련, “지방의회 공천 및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의원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출마자나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 및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비리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의장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홍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김현철씨 한나라 입당하나 여의도뿐 부소장 영입 타진

한나라당 관계자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한때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내정했었다”고 밝혀 그의 한나라당 입당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한때 내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간에 전제적인 인사가 틀어지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양측간에 부소장 자리를 놓고 의견타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후 소

장 인선 자체가 미뤄지며 전체적으로 보류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내달초로 임명이 예상되는 여의도 연구소장에는 김성조 의원 기용이 확정적이고 아직까지 부소장 자리는 미정이라는 것이 당안팎의 전언이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라크 지원 논의”

백악관 “부시, 한미정상회담서 쇠고기 시장 개방 사의 포함 것”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내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테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부시 대통령의 내주 한국, 태국, 중국 순방 일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6일(한국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양국의 관심사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보좌관은 “한미 정상은 2주간 이뤄진 (양국관계의) 인성적인 발전과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문제에 물론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다른 지역의 평화구축

을 하는 일에 미국과 동참하는 문제 등 21세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 정상은 한미 FTA를 양국의 의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시할 것이라고 와일더 보좌관은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부시 대통령 방한의 의미가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재수입되면서 한국인들은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있으며, 쇠고기 이슈는 점차 사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과 원상회복 문제에 언급, “물론 그 문제가 부시 대통령의 방한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는 못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국 국민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도 두 분이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매우 돈독하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도 아주 강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5일(한국시간) 저녁 한국에 도착하며,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회동, 오찬, 용산 미군부대 방문 및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엔 긴급기금 北 지원 200만불 국제기구 통해

유엔이 200만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존 홀름스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탈리프웹’에 따르면, 홀름스 사무차장은 북한을 비롯해 7개 국가에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기구에 3천만 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은 CERF 자금을 산하 인도지원 기구와 국제이주기구(IOM) 등에 지원하고 이들 기구가 다시 협력 기관이나 비정부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계 곳곳의 구호 프로그램 돌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도 이 자금을 이용해 식량과 종자 지원, 예방접종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800만달러가 북한의 보건, 식량, 농업부문에 배정됐다.

유엔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첫 CERF 할당 계획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등 14개 지원 대상 국가를 지정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탈리프웹은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50만뉴질랜드달러(약 3억7천만원)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탁신 부인 금고형 실각한 탁신 치니와 전(前) 태국 총리(왼쪽)와 부인 포자만 여사가 지난달 31일 방콕의 형사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법정은 이날 포자만 여사에게 조세포탈죄로 3년간의 금고형을 선고한 뒤, 금보석으로 석방했다. /연합뉴스

한국 50대 도쿄서 독도사태 항의 손가락 잘라

한국의 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오전 (현지 시간) 도쿄(東京) 시내 나가타초(永田町) 지역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다고 일본 경찰이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일행과 함께 일본 의회가 위치한 나가타초 지역에 찾아와 총리 관저 주

변 보도에서 갑자기 손가락을 잘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으며 오른손 약지의 끝을 약 7mm 가량 잘라낸 뒤 깃발 위에 혈서를 쓰려 했다. /연합뉴스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스피치 리더십 과정은... (내용 생략)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경영 지도자 과정은... (내용 생략)

스피치 리더십 과정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연수일정

교육장소

문의처

광주에서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연수일정

교육장소

문의처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